

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4. 7. 9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4년 6월 27일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14년 7월 8일

다. 상정일자 : 제189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(2014년 7월 9일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과장 강희천

가. 제안이유

아현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완료예정임에 따라 사업구역이 2개의 행정동(아현, 염리동) 및 3개의 법정동(공덕, 아현, 염리동)으로 나뉘어져 있어, 이를 하나의 법정동·행정동으로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염리동 14의 404번지 외 93필지 9,347.4㎡를 아현동으로 편입
(행정동, 법정동 변경)

○ 공덕동 122의19번지 1.0㎡를 아현동으로 편입(법정동 변경)

3. 검토보고 (전문위원 김은모)

-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아현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(조합장 구재익)으로부터 2014.4.28일 ‘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·면·동의 경계변경 신청서’가 우리 구에 접수되었고, 아현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2014. 9. 30일까지 준공 완료 예정임에 따라, 현재 행정동이 염리동으로 되어 있는 마포구 염리동 14의 404번지 외 93필지 9,347.4㎡와 행정동은 아현동이나 법정동이 공덕동으로 되어 있는 마포구 공덕동 122의 19번지 1.0㎡를 모두 아현동으로 변경하여 주민의 편의 도모는 물론 행정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임.

- 아현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소재지는 마포구 아현동 635번지 일대 면적 207,420.8㎡, 아파트는 51개동 3,885세대(분양 3,224세대, 임대 661세대)가 되겠으며, 동일한 정비사업구역 내에 혼재되어 있는 2개의 행정동(아현, 염리동)과 3개의 법정동(공덕, 아현, 염리동)을 하나의 법정·행정동인 아현동으로 통일하고자 제출된 것임.

- 또한, 아현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아파트 준공이후 입주민들이 법정동 분리에 따른 각종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과 등기부 등본 등 각종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준공 이전에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해당부서(주택과)의 의견과 공덕동 1필지 1.0㎡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 조성되고 염리동 94필지 9,347.4㎡는 단지 내 공원으로 조성되며, 거주자도 없고 주로 아현뉴타운 입주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행정구역 관리상 아현동에서 관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역 주민의 의견이 있었음.

- 종합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2014. 6.12~ 6.22일까지 입법 예고 결과 접수된 주민의 의견은 없었고,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절차상에 문제점은 없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동일한 아파트 단지 내 동일한 생활권을 가지고 있는 아현3지구 정비구역 내 염리동과 공덕동을 아현동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- 관련부서에서 유의할 사항으로는 아현3지구 정비구역 내 아파트가 준공 이후 법정동과 행정동의 혼용 표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효율적인 행정업무의 수행을 위해 준공 이전에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관련공부를 조속히 정비할 수 있도록 행정구역 개편 추진 일정별 사전점검 및 절차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

아현제3구역 행정구역 변경도



염리동 94필지 9,347.4m²
(법정동, 행정동 변경)

공덕동 1필지 1.0m²
(법정동 변경)